

**전일동향**

전일과 동일한 1,482.50원에 마감

10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과 동일한 1,482.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40원 하락한 1,475.10원에 개장했다. 위험선호 분위기가 일부 살아났으나 이스라엘이 평화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레바논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태도로 나와 불확실성을 키우며, 1,482.5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0.7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5.10	1483.20	1474.50	1482.50	1479.80
	엔화	932.38	933.20	925.88	930.70	-
	유로화	1734.14	1740.73	1722.18	1738.0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3	-4.08	-9.09	-17.16
	결제환율(수입)	-0.48	-2.66	-6.82	-13.55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미-이란 협상 결렬에...1,49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82.50) 대비 3.00원 상승한 1,484.2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 실패로 인한 아시아 증시 투자심리 악화를 반영해 상승 전망한다. 밴스 미국 부통령이 파키스탄에서 이란과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철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불안감이 재차 고조되었다. 이러한 중동발 리스크는 국제유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상 낙관론으로 제한적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가 하방 압력을 받으며 원화약세 압력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전망이다. 다만, 외환당국 미세조정 경계감과 수출업체 네고물량의 유입은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83.50 ~ 1495.5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0641.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00원 ↑
	■ 美 다우지수 : 47916.57, -269.23p(-0.5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2.9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15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